

# “11시에 만나요” 고품격 음악여행 ‘ACC 브런치 콘서트’

30일 ‘이승광X이봉근’ 공연 시작으로  
하림 아프리카 오버랜드·윤홍천 콘서트  
송영민 해설 ‘쇼팽으로 만나는 지브리’  
전수경 뮤지컬 갈라쇼 등 11월까지 무대

지난 2016년부터 7년째 사랑을 받아온 ‘ACC 브런치 콘서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공연이다. 그동안 클래식, 뮤지컬, 국악, 서커스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으며, 다채로운 음악과 이야기는 관객들에게 적합한 재미와 감동을 안겨줬다.

올해도 ACC 브런치 콘서트가 관객을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올해 첫 상설공연인 ACC 브런치 콘서트를 오는 30일 오전 11시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연다.

올해 브런치 콘서트 시작은 클래식과 판소리의 만남이다. ‘이승광X이봉근의 클래식, 판소리를 만나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작곡가 슈베르트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해 그의 삶과 음악적 과업을 들려준다. 먼저 이승광이 ‘송어’, ‘마왕’ 등을 통해 슈베르트 심정을 풀어낸다. 이봉근은 판소리 주요 레퍼토리인 ‘사랑가’, ‘사철가’ 등을 들려주면서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바리톤 이승광은 2020년과 2021년 시즌 스위스 루체른 오페라극장 ‘제비야의 이발사’의 타이틀 롤 데뷔를 매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봉근은 장르를 넘어 활동하는 대중적인 소리꾼으로 국악 뮤지컬 단체인 ‘타로’의 창단 멤버로 ‘양상블 시나위’, ‘적벽’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4월 공연에서는 무한한 음악세계가 이끄는 아프리카 여행이 주제다. ‘하림의 아프리카 오버랜드’는 하림이 아프리카를 오가며 만든 20여 곡의 노래를 5명의 뮤지션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음악, 마임, 서커스 등의 다양한 예술 장르를 선보이는 시간도 있다. 5월에는 팀 퍼니스트가 ‘체어, 테이블, 체어’를 주제로 서커스 음악을 준비했다. 라이브 연주가 중심이 된 신개념 다원예술 공연으로 저글링, 마술, 마임, 서커스 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코미디 연기가 관객을 찾아온다.

6월에는 첼로의 보편적 이미지를 벗어나 역동적이고 화려한 음색을 표현하는 ‘홍진호의 첼로탄츠 with 조운성’이 펼쳐진

다. ‘탄츠’는 독일어로 춤을 뜻하며, 이번 공연은 강렬하고도 우아한 춤곡을 테마로 구성됐다. 7월에는 정가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시대의 감성을 담아내는 ‘하윤주, 소리의 정원’이 마련돼 있다. 하윤주의 목소리로 구현하는 현대 이야기는 감정의 세계를 환기할 예정이다.

8월에는 윤홍천의 ‘리사이틀 ‘희상’이 관객을 찾아간다. 클래식 본고장 유럽에서 사랑을 받는 윤홍천의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앨범’ 2집 발매기념 전국투어다. 9월의 주제는 ‘쇼팽으로 만나는 지브리’. 쇼팽과 스튜디오 지브리의 음악 속에서 세기를 초월한 음악적 만남을 느끼는 시간이다. 피아니스트 송영민 해설과 솔리스트들의 특별한 만남이 예정돼 있다.

10월에는 일상의 신비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아티스트 이병우가 주인공이다. 영화 ‘괴물’, ‘왕의 남자’ 등 20 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작곡한 이병우는 서정적 선율로 영화 영상미를 견인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마지막 11월은 뮤지컬 배우 전수경과 더 뮤즈의 ‘뮤지컬 갈라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와 함께 그들의 음악,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한편 3월 공연 티켓은 R석 2만원, S석 1만원이며 ACC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리톤 이승광(왼쪽), 소리꾼 이봉근



아티스트 하림과 멤버들

## 국립나주문화재연, 체험 프로그램 금동신발 등불·수호신 만들기 등



나주 정초고분 출토 금동신발

나주 정초고분에서 발굴된 금동신발은 5-6세기 백제 금속공예 기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지난해 금동신발은 보물로 지정됐는데 금동신발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삼국시대 출토 유물 가운데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은 국보나 보물로 많이 지정됐다.

금동신발 등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은석)는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금동신발 등불 만들기는 금동신발 모습을 아간 장식조명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상상 속 동물을 자기만의 ‘수호신’으로 생각하며 만들 수 있다. 제작 후에는 금동신발 등불을 매개로 간단한 UCC 동영상 제작하거나 금동신발에 있는 상상 속 동물들을 모티브로 수호신을 그리는 대회도 마련돼 있다.

토기 만들기 체험은 영산강 유역 출토 토기를 매개로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이다. 5월부터 8월까지 총 6회(회당 20명) 진행한다. 청소년 진로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회당 30명) 진행하며 나주문화재연구소 견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 홍보관과 발굴현장, 수장고와 보존과학실 등을 견학하며 학예사들로부터 관련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7월부터 11월까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신청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일상의 따뜻한 울림 ‘집으로 가는 길’

아산조방원미술관 기획전, 강진이 등 작가 5명 초청 5월1일까지

‘따뜻한, 집으로 가는 길’

‘일기 그리는 엄마’로 알려진 강진이 작가가 그려낸 어느 여름날의 풍경은 평온하고 아름답다. 별이 빛나는 여름 밤 옥상 평상 위 둘러 앉은 가족들은 과일과 나누고, 아이들은 큰 대자로 누워 별을 본다. 누군가는 기타를 치며 작게 노래를 부르고. ‘모두가 빛나던 밤’에 등장하는 빨래도, 장독대도 주인공이 돼 그날의 풍경을 완성한다.

곡성 옥과에 자리한 아산조방원미술관이 기획전으로 준비한 ‘집으로 가는 길’ (5월1일까지)은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기획이다. 장기간 지속된 팬데믹에 지친 이들에게 더없는 위로를 전하는 공감의 전시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상의 순간들을 따뜻하게 포착해내는 5명의 작가를 초청, 모두 45점의 작품을 보여준다.

강진이 작가는 작품의 주제인 가족과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자신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며 회화뿐 아니라 자수나 수놓은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향토색이 느껴지는 목가적인 풍경과 평범한 일상을 담은 조병철 작가의 작품 ‘봄 손님’은 보는 순간, 바로 누군가의 집을

떠올리게 된다.

봄을 알려주는 흰 목련꽃과, 설레는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 담장을 사이에 둔 이웃집의 모습까지 한 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전시작들은 2000년 전후에 제작된 작품들로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의 색감이 아련함을 더한다.

세월의 흔적이 쌓인 주택가 골목길을 그려낸 노여운 작가의 작품은 파스텔톤의 따뜻함이 돋보인다. 동네 이웃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도 하는 오래된 슈퍼마켓의 모습에는 정감 어린 사연들이 담겨 있을 듯하다.

임현채 작가는 삶에 대한 긴장감을 일상의 사소한 풍경으로 담아낸다. 해맑은 아이들의 흔적들과 일상을 둘러싼 소소한 풍경들이 이번에는 화사하고 부드러운 오일파스텔을 통해 동화적 분위기로 묘사됐다.

본래의 기능이나 가치를 잃은, 실존하는 오래된 건물들을 사진으로 찍어 조형물로 재탄생시키고 다시 활용하는 안희정 작가의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는 삶의 흔적을 보여준다.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강진이 작 ‘모두가 빛나던 밤’



‘흔적의 정원’

## 일상에 상상을 더해 ‘흔적의 정원’

50만 팔로워 노마 개인전, 9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동화적인 느낌의 ‘불투명 수채화’로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플루언서이자 작가 노마(NOMA)가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9일까지 개인전을 갖는다.

‘흔적의 정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10월 국내 수채화 일러스트레이터로는 최초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한 동명의 전시를 그대로 재현한 기획이다. 노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팔로워 수 50만 명을 넘는 인플루언서이자, 청년·여성 작가다.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과 상상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나는 노마 작가는 불투명 수채화뿐만 아니라 아크릴, 유화, 디지털 페인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

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시에서는 원화 작품과 함께 습작과 화집 등도 만날 수 있으며 엽서 등 굿즈도 판매한다.

노마 작가는 그림 뿐 아니라 인기 아티스트들의 앨범 아트 작업도 진행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영지&래원’, ‘권은비’, ‘스탠딩에그’, 2F(신용재, 김원주), 케이시, DAY6(데이식스), pH-1 등이 대표적이다.

노마는 지난 2021년에도 광주에서 다른 주제로 전시회를 연 적이 있으며 이번 광주 전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2022년 2월 부산 디자인진흥원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 이은 국내 네 번째 개인전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ACC TEEN 문화예술교육’

참여 청소년 단체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CC TEEN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청소년 단체를 모집한다. ‘ACC TEEN 문화예술교육’은 중학교 자유학년제시대에 따른 진로 탐색과 맞물린 문화예술체험이다. 프로그램은 ‘ACC 평화이야기보관소’, ‘기후 위기를 말하는 예술’이 그것.

‘ACC 평화이야기보관소’는 민주, 인권, 평화를 소재로 한 게임형 디지털 이야기하기 프로그램이다. (5월 12일 - 26일, 9월 1일 - 29일 매주 목요일 ACC 문화정보원 강의실)

참가자는 모뎀별로 태블릿 PC를 들고 ACC를 돌아다니며 임무를 수행한다. 평화이야기보관소에 숨겨진 단어를 수집해 암호를 풀며 평화 경로를 만든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기후 위기를 말하는 예술’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예술로 표현하고 관련 직업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5월 3일 - 7월 6일, 9월 6일 - 11월 30일 매주 화, 수요일 온라인 진행)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은 학교 등 단체로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4월 14일까지 1개월 연장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에서 진행 중인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전시 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전시는 오는 13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4월 13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난해 7월 21일 개막한 ‘이건희컬렉션 특별전’은 지난달까지 8만여 명이 관람했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시간당 관람 인원이 제한되며, 현재 시간당 100명이 관람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노년층의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자 매일 오전 10-11시는 노년층(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전용 관람 시간대로 운영한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오디오가이드 기기와 큰 글씨 설명서 등 관람 보조 자료도 제공한다. /연합뉴스